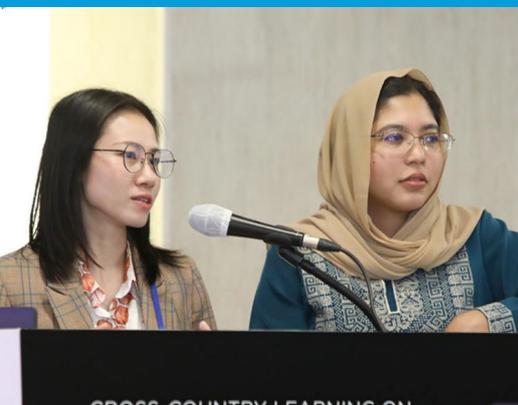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With support from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유엔여성기구 소개

유엔여성기구는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된 유엔 기구입니다. 2010년 7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재임 당시 유엔 총회에서 유엔 시스템 산하 네 개의 성평등 기구를 통합하는 결정에 따라 탄생했습니다.



여성에게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권을 확립하고 존중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

유엔여성기구는 유엔회원국이 성평등 달성을 위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 및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이런 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법과 규제를 개선하고, 전 세계 여성이 진정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를 개발하는 노력을 지원합니다.

유엔여성기구는 전 세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비전을 모든 여성의 삶에서 실현하고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지지하고자 다음 네 가지 전략적 과제에 집중합니다.



“법적 보호의 격차를 줄이고 차별적인 법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28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286년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편재한 여성에 대한 폭력, 건강 불평등, 조혼과 같은 문제들이 만연한 것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는 평화, 기후 협상 테이블, 의사 결정 공간에서 여성을 제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기다릴 수 없습니다.

- 시마 바후스 유엔여성기구 총재

- 거버넌스 및 공적 생활 참여:

여성이 의사 결정에 완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하며, 성인지적인 법, 정책, 예산, 서비스 또한 책임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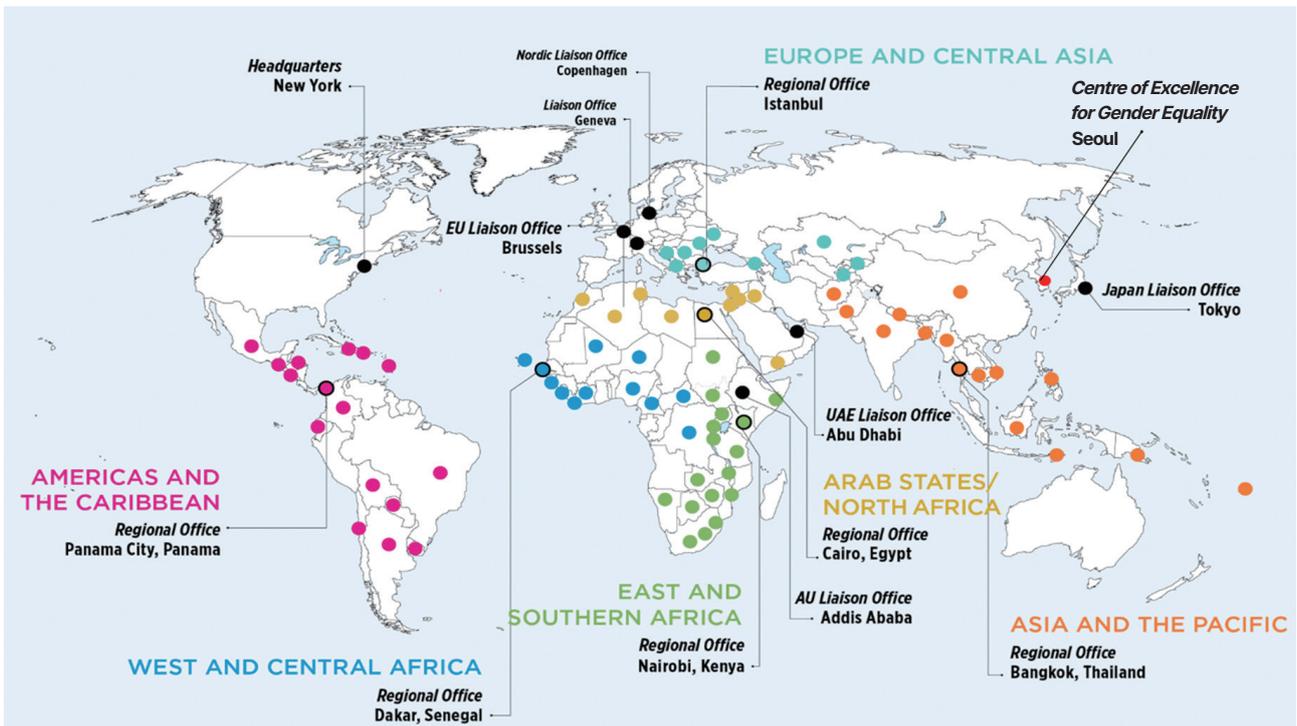
여성이 소득의 안정성, 좋은 일자리, 경제적 자율성을 누립니다.

-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

여성이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립니다.

- 여성, 평화, 안보, 인도주의적 활동과 재난 위험 경감:

여성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재난 회복력을 구축하는 일에 기여하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자연재해 및 분쟁 방지와 인도주의적 활동으로부터 동등한 혜택을 받습니다.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전 세계 인구의 40%가 거주하며, 지역 경제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곳은 지난 10년 동안 경제가 성장하면서 성평등의 촉진과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및 정책 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 부문에서 정책과 이행 간의 커다란 격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식·파트너십 허브로서 한국을 넘어 아태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평등과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를 집중 전담하는 유엔 기구로, 2022년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네가지 활동 분야

2024년 센터는 다음 네 가지 주요 분야에 우선 순위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젠더 폭력 종식
- 기후 변화와 젠더
- 여성, 평화, 안보

센터는 각 분야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책 토론, 국제 포럼, 애드보커시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 자료집을 제작합니다.

센터는 또한 SDGs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와 젠더 통계 수집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제기구·외교공동체·정부·시민사회·민간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을 달성하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은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국제협력의 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유엔여성기구의 소임에 뜻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 김은미 유엔여성기구 대한민국 친선대사



젠더통계

센터는 네 가지 활동 분야 이외에도 SDGs 진전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 정부 관계자들의 젠더 데이터 생산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온라인 젠더 통계 트레이닝 세션을 비롯, 태평양 도서국과 아세안(ASEAN) 회원국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대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각국의 젠더 부처와 통계청의 100여명이 관련 트레이닝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국에서 SDGs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젠더 데이터를 식별하는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센터는 해당 트레이닝 커리큘럼에 대한 강사 양성 교육(trainings of trainers, TOT) 과정을 실시합니다. 교육생들이 독립적으로 교육 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2022~2024 활동 내용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국문 안내 자료 제작 2023. 03.
WEPs 한국 워크숍 2023. 04.
WEPs 한국 워크숍 지식자료 제작 2024. 05.
민간 기업 대상 제1회 유엔여성기구 서울 담화 2023. 11.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파트너십 체결 2024. 05.
WEPs 지표 활용 기업 기본 체크리스트 개발 및 확산 2024. 06.~
EMPOWER 프로그램 워크숍 2024. 07.
민간 기업 대상 제2회 유엔여성기구 서울 담화 2024. 09.
관련 지식자료 제작 2024. 12.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정책 포럼 2023. 12.
돌봄 경제에 대한 지역 워크숍 2024. 11.
국제 돌봄 연합 (Global Alliance for Care) 확산 2024. 09.~

젠더폭력 증식
기술 매개 여성폭력 대응 국제 청년 역량강화 연수 2023. 08.
페미사이드 근절 국제회의 2023. 09.
페미사이드 근절 지식자료 제작 2024. 04.
페미사이드 통계프레임워크 시범사업(몽골, 피지) 2024. 04.~12.
기술매개 여성폭력 측정·대응 국제포럼 2024. 07.
기술매개 여성폭력 측정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2024. 07~
젠더 관점의 범죄통계 생산·사용 역량 교육훈련 2024. 09.
젠더 관점의 범죄통계 e-Learning 모듈 개발 2024. 12.
젠더폭력 생존인의 합동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강화 2022.
폭력에 노출된 여성에 대한 핵심 서비스 교육 훈련 2022.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RESPECT 프레임워크 형성을 위한 교류 및 학습 워크숍 2023. 10.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RESPECT 프레임워크 형성 지식자료 제작 2024. 12.

기후변화, 재난위험경감, 인도주의적 행동

인도적 지원에서의 젠더 주류화 기본 및 심화 워크숍
2023. 04.

젠더 관점이 반영된 인권 기반 기후행동 교육 훈련
2023. 05.

기후변화, 젠더 및 과학기술간 통합적 접근방안 논의
정책포럼
2023. 09.

젠더 변혁적 재난위험경감 지역 교육 훈련
2023. 09.

젠더 대응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계획
워크숍
2024. 05.

젠더 대응적 기후행동 및 재해 복원력 훈련 필리핀 워크숍
2024. 06.

성평등 및 기후행동을 지향하는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2024. 07.

효과적인 젠더 대응적 계획, 자금 조달 및 디지털 정부
혁신을 통한 모두를 위한 재난 위험 감소 및 조기경보
시스템에 관한 온라인 워크숍
2024. 07.

여성, 평화, 안보

유엔 여군 PKO 역량강화과정
2023. 09.

여성 유엔평화유지군 국제포럼
2023. 09.

국방부 MOU 체결
2023. 12.

여성, 평화, 안보 특별 세미나
2024. 10.

아태 지역 여군 대상 유엔평화유지활동 훈련
2024. 10.

Cross cutting 젠더 통계·데이터

여성 및 기술 데이터 전문가 협의
2022. 12.

여성 및 기술 데이터 지식자료 제작
2023. 07.

젠더 통계 활용 SDGs 모니터링 온라인 교육 훈련
2022. 12.

젠더 통계 활용 SDGs 모니터링 정부
역량 강화 교육 훈련 (태평양도서국, 아세안국가)
2023. 05. 10.

젠더 통계 활용 SDGs 모니터링 강사 역량 강화 교육
훈련(TOT)
2024. 10.

연례 주요 행사

세계여성의날
매년 3월 8일

성평등을 위한 리더벨 캠페인
매년 3월

정책 담화
ex. 세계여성지위위원회(CSW) 합의결론 공유
베이징행동강령(BPfA) 30주년 준비 논의

젠더폭력 종식을 위한
16일간의 캠페인
매년 11월 25일~12월 10일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아태 지역의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4.1배, 일부 국가에서는 최대 11배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무급 돌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저해하고 있습니다.¹

아태 지역의 전체 유급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² 정규 직업을 가진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아태 지역의 성별 임금 격차는 1.5%에서 49.6%에 달합니다.³

이에 따라 센터는 아태 지역에서 경제 구조를 '돌봄 경제'로 재편하는 정책이 확산되도록 지식 자료를 생산하고 포럼과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 부문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대표성이 낮은 건설, 기술, 제조업, 금융과 같은 산업 분야가 초점입니다. 기업 임직원들이 포용적 조직 문화를 만들도록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이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유엔여성기구 서울 담화에서는 사기업 임직원들이 통찰력이 담긴 이야기를 전합니다.

유엔여성기구 서울 담화(UN Women Seoul Dialogue)

유엔여성기구 서울 담화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센터의 대표적 행사입니다. 2023년 11월에는 '여성과 함께 성장하는 핵심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핵심 산업에서 젠더 고정관념을 깨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술, 금융, 건설 등의 분야에서 리더의 자리에 올라선 여성들이 롤모델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유수의 기업 관계자들이 포용적 직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김경희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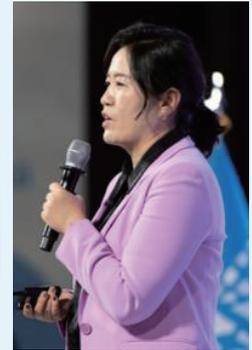
안수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



마이크 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개리 포드
맨 포 인클루전
(Men for Inclusion)
공동설립자, '우연한
성차별주의자' (Accidental
Sexism) 저자, 전
JP모건체이스 매니징 디렉터



안미선
포스코이앤씨 상무보



3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제 1회 서울 성평등 담화: 여성과 함께 성장하는 핵심 산업의 미래'에 참여했다. 사진: 유엔여성기구/이한주

1 ADB and UN Women, 2018
2 ILO: KILM 9th edition, 2015
3 ADB and UN Women, 2018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여성역량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EPs)은 유엔여성기구와 유엔글로벌콤팩트가 공동으로 시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기업에 직장, 시장, 지역사회 내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7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4년 2월 기준, 160여개의 국가에서 9,300여명의 최고경영자(CEO)가 여성역량강화원칙에 서명해 기업의 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선언했습니다.

9000+ SIGNATORIES

Advancing gender equality in the workplace, marketplace & community.

- 1 PRINCIPLE** High-level corporate leadership
- 2 PRINCIPLE** Treat all women and men fairly at work without discrimination
- 3 PRINCIPLE** Employee health, well-being and safety
- 4 PRINCIPLE** Education and training for career advancement
- 5 PRINCIPLE** Enterprise development, supply chain and marketing practices
- 6 PRINCIPLE** Community initiatives and advocacy
- 7 PRINCIPLE** Measurement and reporting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 UN WOMEN

weeps.org | LinkedIn | YouTube

WEPs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CEO는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아젠다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한 비즈니스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 적용, 성인직업 공급망 구축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적용 등이 있습니다.

2023년 4월 센터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함께 '여성역량강화원칙 한국 워크숍'을 통해 한국에서는 최초로 국내 기업 및 기관 관계자 대상의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성역량강화원칙의 이행을 통해 기업의 성평등을 증진할 현실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센터는 가이드북과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국문으로 제작하여 국내 기반 기업의 가입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숍에서 공유한 인사이트와 이행 사례를 담은 요약 보고서를 제작했습니다.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한국 워크숍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EPs) workshop for Korea

일시: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 오후 15:00-17:00
장소: 서울 송파구 대동로 22호
Date & Time: Thursday 20 April 2023 | 15:00-17:00 KST
Location: 22F Rabi Hall, The Plaza Seoul

WEPs 가이드북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REQUENTLY ASKED QUESTIONS

WEPs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ORKSHOP FOR REPUBLIC OF KOREA
APRIL 2023

IN BRIEF

Snapshot
The 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organized the first workshop on the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EPs) in the Republic of Korea, facilitated by UN Women and UN Global Compact. The WEPs are a set of Principles offering guidance to business on how to advance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the workplace, marketplace and community.

Words from the Organizers
"We believe that companies can take the lead in achieving gender equality through innovation, empowerment, and finance. Such efforts will not only benefit women and men who work for companies, families, and communities but also the overall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companies."
— Jeon Eun-kyeong, Director of the 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I hope that this event today will be a first to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gender equality and diversity and inclusive within companies and that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create substantial change by leading on the sharing and discussion."
— Elizabeth Yu, Secretary General of UN Global Compact (Republic of Korea)

"We welcome Korean companies to the global efforts of meeting SDG 5 (gender equality). To be a leader in today's global economy, gender equality needs to be at the core of business models. It is about business, innovation, business partners, talent, consumers - respect from companies."
— Anne Wren, Global Head of WEPs, UN Women

[지식자료] 여성역량강화원칙 (WEPs) 한국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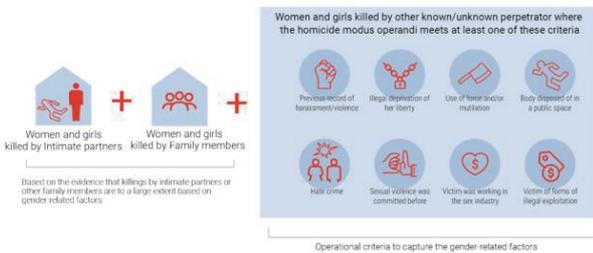
젠더폭력 종식



2022년 아태지역에서 친밀한 파트너나 가족에 의해 살해된 여성 피해자는 18,4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지역 다음으로 해당 사례에 대한 보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¹

페미사이드(Femicide, 여성살해)란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 불평등한 관계, 해로운 사회적 규범 등 젠더와 관련된 요인이 범행 동기로 작용한 고의적인 여성살해를 의미합니다.² 페미사이드는 그간 국제적 정의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데이터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유엔통계위원회는, 유엔여성기구와 유엔마약범죄사무국이 공동개발한 페미사이드 통계 수집을 위한 국제통계프레임워크를 승인해 국제 표준을 확립했습니다.

The data blocks for collecting and aggregating statistics on gender-related killings



페미사이드(여성살해) 측정을 위한 통계 변수

해당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자, 센터는 2023년 9월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와 함께 '페미사이드 근절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태 지역 국가의 참가자들은 페미사이드 데이터 수집 및 측정, 대책 수립에 관한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이곳에서 다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센터는 이듬해 4월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와 함께 몽골과 피지에서 페미사이드 통계를 측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 센터는 각국 정부와 협력해 살인 관련 데이터 수집을 담당하는 기관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고, 여성이 살해된 사건 가운데 페미사이드를 식별하는 기준을 도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비교 등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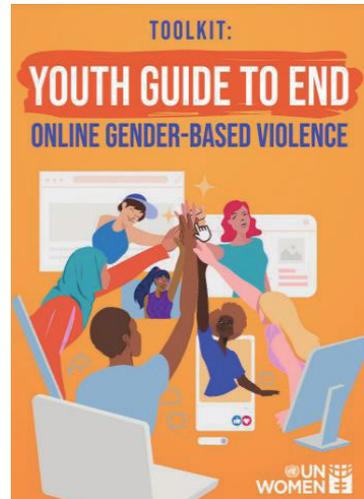


페미사이드 시범사업 워크숍에 참석한 몽골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사진: 몽골범죄예방조정위원회

1 UNODC and UN Women, 2023
2 UNODC and UN Women, 2022
3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1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85%가 온라인 폭력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한 사람을 알고 있으며, 아태 지역의 경우 이 비율이 88%로 상승합니다.³

센터는 유엔여성기구 아태 지역사무소가 발족한 '2030을 위한 30 네트워크(30 for 2030 Network)'의 청년 리더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젠더기반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 청년 역량강화 연수'를 2023년 8월 개최했습니다. 해당 연수는 아태 지역 청년 리더들이 디지털 젠더기반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지식을 교류하고 각국에 걸맞은 행동 계획을 세워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젠더기반폭력 종결 가이드 2호'가 제작되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젠더기반폭력 종결 가이드 2호

청년 리더들의 주도로 제작된 가이드는 정부, 테크 기업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디지털 젠더기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며, 생존자들이 겪는 상황과 그 결과를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센터는 기술 매개 젠더폭력(TFVAW)에 관한 데이터 수집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지역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기술 매개 젠더폭력을 측정하는 방식을 논의하는 동시에 국가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와 협력하여 관련 데이터 생산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미사이드와 기술 매개 젠더 폭력에 대해 쌓은 전문성을 토대로 범죄 통계 교육도 추진됩니다. 2025년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와 협력하여 젠더 관점에서의 범죄 통계에 관한 기존 온라인 학습 과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교육은 범죄 통계의 주요 개념을 다루며, 페미사이드와 기술 매개 젠더폭력에 대한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기후변화, 재난위험경감, 인도주의적 행동



아태 지역은 세계에서 재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여성은 정보, 자원, 금융,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위기 발생 후 대처와 재건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센터는 젠더 관점을 고려한 국가적 기후 행동을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부문에서 촉진하도록 역량 강화 워크숍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표단과 전문가들이 성평등과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서울에 모였다. 사진: 유엔여성기구/김승재

2023년 5월 '계획부터 실행까지: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인권 지향적 기후 행동 워크숍'은 여성의 참여가 보장된 성인지적 기후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 실무자의 인식을 높이고자 해결책 중심의 접근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기후위기로 초래되는 재난 상황에 초점을 맞춘 워크숍도 진행하며, 일례로 2023년 9월 '아태 지역 젠더 변혁적 재난 위험 경감 연수'는 재난 위험 경감 부문에서 일하는 정책 입안자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젠더 분석 및 젠더 주류화에 대한 기술과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센터는 아태 지역 대상의 새로운 교육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정립된 유엔여성기구의 트레이닝 모듈을 토대로, 센터는 실제 국가별 계획과 정책,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기후행동이 포함되도록 여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센터는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공동 주최했고, 지구환경기금(GEF), 적응기금(Adaptation Fund), 녹색기후기금(GCF), 국제지속가능개발협회(IISD),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협력해 '젠더 대응적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계획 워크숍'을 2024년 5월 진행했습니다. 파리 협정 당사국들이 NDC를 제출할 때에 젠더 관점의 목표와 정책이 포함하도록 유익한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배우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온 참가자들이 모여 젠더 대응적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지역 및 국가 행동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 유엔여성기구/김관주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에도 성인지적 기후행동이 포함되도록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ODA 전문가를 대상으로 성인지적 기후행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론을 교육하는 모듈을 개발하고 워크숍을 2024년 7월 진행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여성은 젠더 불평등에 직면합니다. 정보, 이동성, 의사 결정, 자원 및 교육 접근성에 제약을 느낍니다. 이에 따라 여성은 남성보다 생존 확률이 낮고 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 유엔여성기구/모하메드 라키볼 하산

여성, 평화, 안보



아태 지역 전역의 안보 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습니다. 유엔평화유지군의 단 3%만이 여성입니다.¹ 센터는 여성의 안전하고 평등하며 의미있는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2023년 9월 진행된 유엔 여군 PKO(평화유지요원) 역량강화과정(Women's Military Peace Operations Course)을 지원한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유엔 여군 PKO 역량강화과정은 유엔여성기구의 이니셔티브 하에 유엔평화활동국(DPO) 통합훈련처(ITS)와 회원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선발된 여성 군인들이 유엔평화유지활동 파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에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국방대학교 산하 국제평화활동센터가 주관한 해당 과정에 12개국의 여성 군인 2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유엔 여군 PKO 역량강화과정 참가자들의 단체사진.

사진: 유엔여성기구/박찬영

대한민국이 2024-2025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이후 '여성, 평화, 안보' 아젠다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관련 포럼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2023년 9월 개최한 제1회 여성 유엔평화유지군 포럼에 기조 연설자로 참여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2014년 크리스틴 룬트 소장을 유엔 사상 최초의 여성 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여성 유엔평화유지군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유엔여성기구/이승화

지휘관 경험이 있는 유능한 여성 군 장성들은 전 세계적으로 군 조직에 아직까지 존재하는 성별 고정관념을 나눴습니다. 여성 군인이 성공적으로 경력을 발전시키고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세릴 피어스 소장, 잉그리드 예르데 중장, 콜로넬 B. 우드 대령.

사진: 유엔여성기구/이승화

센터는 유엔여성기구의 #히포쉬(#HeForShe) 캠페인을 군 조직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남성 군 장교들이 포럼에 참여해 여성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들의 실제 평화유지활동 경험을 토대로 관련 내용이 공유됐습니다.



사테브 카드카 소장, 문동수 대령, 휴고 T. 로이드 대령, 코리 브래독 대령(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 유엔여성기구/이승화

#히포쉬(HeForShe) 캠페인



히포쉬는 남성을 비롯한 모든 젠더의 사람들이 여성과 연대해 성평등을 향해 단합하는 캠페인입니다. 2014년 엠마 왓슨 유엔여성기구 친선대사가 남성에게 성평등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며 캠페인을 널리 알렸습니다.

1 UN Women, 2015

대외협력 및 애드보커시 행사

세계여성의날



매년 3월 8일은 세계여성의날로, 세계 도처에서 국제사회, 정부, 시민사회, 기업이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미래를 위해 여성에 투자하세요'라는 구호 아래 센터가 주최한 기념행사에 200명 이상이 참여해 성평등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센터는 한국거래소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거래소, 국제금융공사와 함께 '링더벨(Ring the Bell for Gender Equality)'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링더벨 캠페인은 성평등 달성을 위한 민간 부문 협력과 WEPEs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는 취지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CSW)

2023년 제6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기술 변화 및 교육'이었습니다. 여기서 도출된 합의 결론을 진전시키기 위해 센터는 두 개의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정책 포럼은 기술과 젠더, 기후변화 간 교차성을 국내에서 최초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큼니다. 또한 센터는 2022년 12월에 '여성과 기술에 관한 데이터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관련 통계 지표 및 측정 방법론 개발과 데이터 수집 문제 등에 대해 학계, 국제기구 및 정부 기관 전문가가 제시한 권고 사항을 자료로 제작했습니다.



[지식자료] 여성과 기술 관련 데이터를 위한 전문가 회의

16일간의 글로벌 캠페인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은 전 세계적으로 젠더폭력 종식을 위한 16일간의 글로벌 캠페인 기간입니다.

2023년 12월 센터는 '남자다움에 대하여: 남성이 젠더폭력 종식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와 성평등이 남성에게 이로운 실질적 이유'를 주제로 특별 담화를 진행했습니다. 폭력의 근원적 이유를 다루면서 젠더 폭력 예방에 남성이 얼마나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다뤄졌습니다.

아태 지역의 여성 장애인 이니셔티브 지원



[지식자료] 아태 지역의 지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여성이 경험하는 사법 격차를 해소하는 연구

센터는 2022년 발족한 '사법 격차 해소 프로젝트(Closing the Justice Gap project)'를 지원합니다. 다음 연구 프로젝트는 네팔, 피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태 지역의 지적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경험하는 사법 격차를 조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증거 기반의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홈페이지



뉴스레터



웹스토리



언론보도



X



유튜브



링크드인



네이버블로그



“여성의 참여와 성평등은 우리 모두의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이 모든 사람을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진전 속도로는 성 평등을 달성하기까지 약 30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00년은 너무 긴 시간이라는 데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With support from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https://asiapacific.unwomen.org/en/countries/rok/>

 +82)2-720-7220

 coe.korea@unwomen.org